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0. 15.(목) 11:00
(지면) 2026. 10. 16.(금) 조간
배포 2026. 10. 15.(목) 06:00

무인도서의 가치를 지키는 손길, 여수 바다로 이어진다

- 10월 16~17일, 여수 소재 무인도서 4곳 해안 및 수중쓰레기 집중 수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가덕도, 수항도, 형제도, 뒷여 무인도서에서 '2026년 제2차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무인도서를 깨끗한 도화지처럼 보전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도(島)화지 프로젝트'로, 지난 6월 제주 차귀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캠페인 대상지는 여수시 북쪽 소호동 인근 가덕도와 남쪽에 위치한 금오도 주변의 수항도, 형제도, 뒷여 등 4곳의 무인도이다. 이 중에서 형제도는 지난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으로 왜가리, 노랑발도요, 바다직박구리가 서식하고, 육상 포유류인 수달의 배설물이 관찰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해 '포스코(POSCO)',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섬즈업(SEOMSUP)' 등 기업·민간단체와 함께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무인도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해양영토이며,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건강한 무인도서의 생태·환경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51-773-5350)
		담당자	사무관	한광남 (051-773-53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참고 1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 포스터



참고 2 **해양 정화 대상 무인도서 위치**



(1일차) 수항도, 형제도, 뒷여



(2일차) 가덕도